함께 나누는 행복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함께 희망을 나누고자 합니다.
행동하는 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해지는 인탑스가 되겠습니다.

INTOPS GROWING TOGETHER

본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51 TEL : 031-441-4181 FAX : 031-448-4194 www.intops.co.kr

INTOPS 인탑스주식회사
경북 구미시 옥계2공단로 148

INTOPS WEIHAI 인탑스위해전자유한공사
중국 산동성 위해시 고기술구 과기로

INTOPS TIANJIN 인탑스천진전자유한공사
중국 천진시 진남구 북갑구진 정영공업구

INTOPS VIETNAM 인탑스베트남주식회사
베트남 박닌성 옌퐁 룽차우 앤퐁공단

PLATEL 플라텔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97

PLATEL 플라텔주식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길 110

PLATEL VINA 플라텔 비나
베트남 호치민시 9군 하이테크파크공단

PS글로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7 인탑스빌딩 2층

MIRAE HQ 미래 주식회사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한1길 497

MIRAE GUMI 미래 주식회사
경북 구미시 옥계2공단로 148

MIRAE OKCHEON 미래 주식회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농공길 1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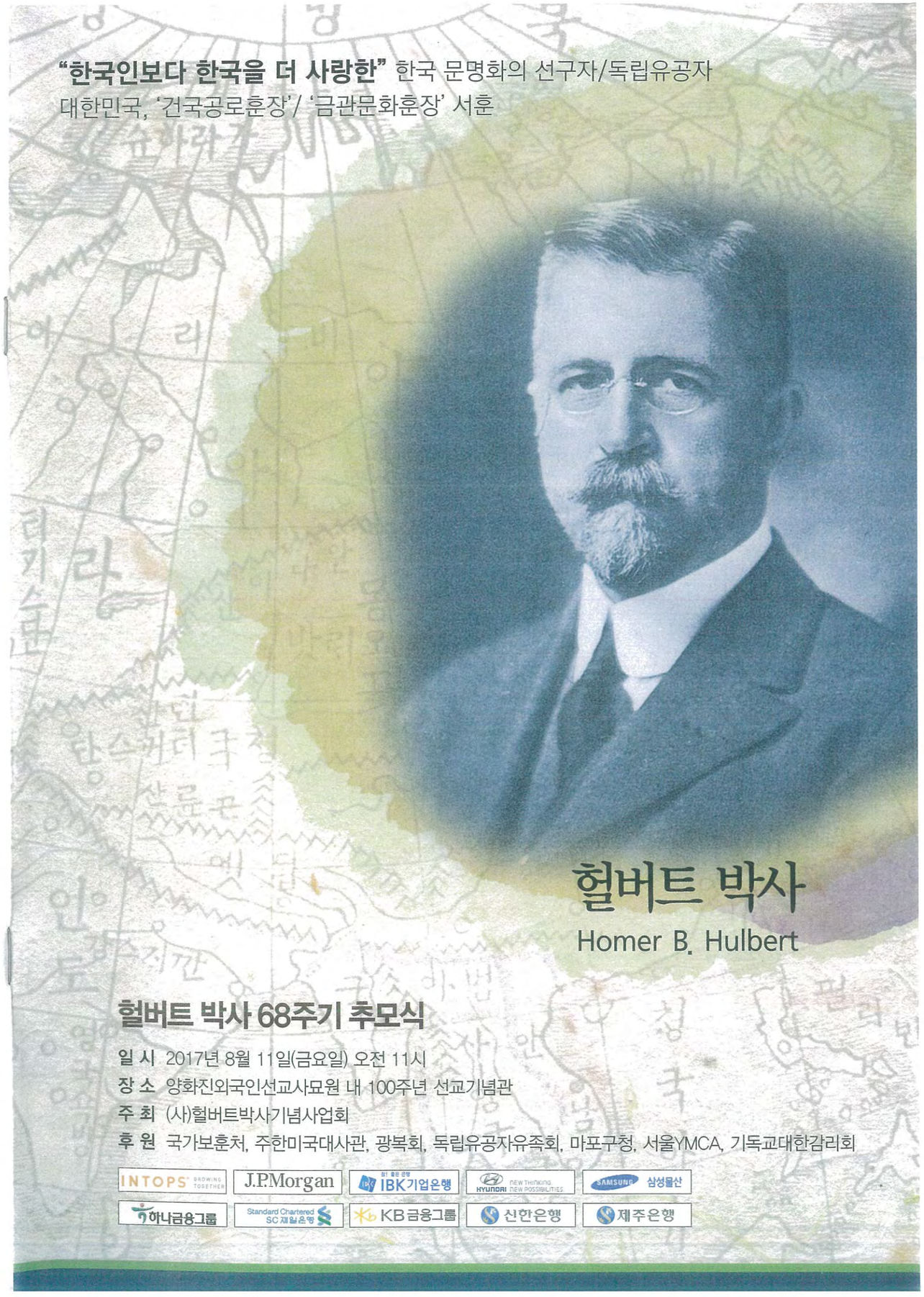
MIRAE WEIHAI 위해대해전자유한공사
중국 위해시 고기술구 추은진 금산로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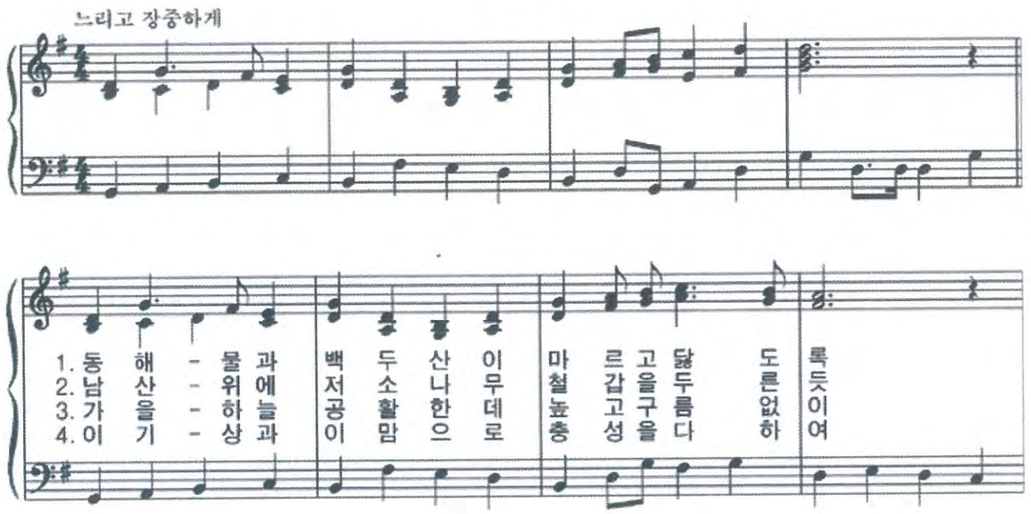
NEOMARU 네오마루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15번길 49

PYEONGSAN ACADEMY 평산아카데미
경북 칠곡군 등명면 득명1길 106

ARRO 아로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51

DBS크루즈해리(주)
강원도 동해시 대동로 210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별관



애 국 가

헐버트(Homer B. Hulbert) 박사 약력

한국 이름 : 흘법(訖法) 또는 할보(轄甫)

1863년 1월26일 : 미국 버몬트 주에서 아버지 칼빈 헐버트(목사,대학총장)와 어머니 매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남

1884년 : 다트머스(Dartmouth) 대학 졸업, 유니온 신학대학(Union Theological Seminary)입학

1886년 7월5일 : 육영공원(Royal English College) 교사로 내한

1888년 9월 : 메이 한나(May B. Hanna)와 결혼

1891년 : 〈사민필지〉 최초의 근대식 한글 교과서 출간

1891년 12월 : 미국으로 귀환

1893년 10월 : 감리교 선교사로 재 내한–삼문출판사(Trilingual Press) 책임자 동대문교회 담임 목사

1897년 : 한성사범학교 교장

1900년 : 관립중학교(현 경기고등학교) 교관

1903년 : YMCA 창립총회의장–YMCA 창립선포

1905년 : 〈한국사(The History of Korea)〉 출간

1905년 : 고종의 밀사로 미국 방문/루스벨트 대통령에게 고종 친서 전달 시도(국무장관에게 전달)

1906년 : 〈대한제국멸망사(The Passing of Korea)〉 출간

1906년 6월 : 헤이그만국평화회의를 위한 고종의 특사로 임명됨

1907년 7월 : 헤이그에서 한국인 특사들을 돕고 평화클럽에서 일본의 불법성 폭로

1907년 7월 : 일본의 박해로 미국으로 돌아가 스프링필드(Springfield)에 정착

1909년 8월~11월 : 일시적 방한, 고종 황제로부터 내탕금에 관한 전권 수임

1907년~1945년 : 셔타콰(Chautauqua)강좌 등 미국 전역에서 조선의 독립을 역설

1919년 : 3 · 1독립혁명 직후 미국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 일본의 잔학상을 고발하는 독립 호소문 'What about Korea?'제출

1942년 : 한국자유대회(Korea Liberty Conference)에서 한국의 독립 호소

1949년 7월29일 : 대한민국 국빈 초정으로 40년 만에 한국에 귀환

1949년 8월 5일 : 내한 일주일 만에 여독으로 청량리 위생병원에서 별세

1949년 8월11일 : 최초의 외국인 사회장으로 영결식 거행 후 양화진에 안장

1950년 3월 1일 : 대한민국, 외국인 최초로 '건국공로훈장(태극장)' 추서

1999년 8월 5일 : 김대중 대통령의 휘호를 받아 50년 동안 비어있던 묘비에 '헐버트 박사의 묘'라는 묘비명을 새김. 기념비 건립

2013년 7월 : 대한민국, 외국인 최초로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선정

2013년 8월 : 경북 문경시, '문경새재헐버트아리랑비' 제막

2013년 12월 : 서울시, 한글 역사인물 '주시경–헐버트' 상징조형물 종로구에 제막

2014년 10월 9일 : 대한민국, '금관문화훈장' 추서

2015년 10월 7일 : (사)서울아리랑페스티벌, 제1회 '서울아리랑 상' 추서

식 순

사회 : 사무총장/홍보실장

주악 : 서울경찰악대

- 개 회
- 국 민 의 례
- 기 도 ..... **이병우**(기독교대한감리회 충북연회 감독)
- 약 력 보 고
- 식 사 ..... **김동진**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회장
- 추 모 사 ..... **이경근** 서울지방보훈청장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 대리
  박원순 서울시장
  박유철 광복회장
- 영 상 시 청
- 헐버트 아리랑 감상 ..... **역사청소년합창단**
- 인 사 말 ..... **노웅래** 국회의원
  손혜원 국회의원
  박홍섭 마포구청장
  코마츠 아키오 인간자연과학연구소 이사장
- 헐버트 박사 제작 거북선 모형 공개 ..... **전우홍** 해양유물 수집가
- 예 사
- 헌 화
- 폐 회

※ 추모식 후에 묘소 주변에서 점심식사가 있습니다.

Program Table

MC : YongHo Jeong/Jane Kang

Band : Seoul Police Band

- Opening
- Salute
- Prayer ..... **ByeongWoo Lee**/Bishop, Methodist Church
- Introduction of Hulbert's Biography
- Chairman's Message ..... **DongJin Kim**/Chairman, The Hulbert Memorial Society
- Memorial Speech ..... **KyungGun Lee**/Director General, MPVA Seoul
  Marc Knapper/Chargé d'Affaires, U.S. Embassy to Korea
  WonSoon Park/Mayor of Seoul City
  YuChul Park/Chairman, Korea Liveration Association
- Video Watching
- Listen to Hulbert's 'Arirang' ..... **History Students Choir**
- Guest Remarks ..... **WoongRae Noh**/Member of National Assembly
  HyeWon Sohn/Member of National Assembly
  HongSup Park/Mayor, Mapo-gu, Seoul
  Komatsu Akio/Human, Nature & Science Ins. Foundation
- Demonstration of 1st facsimile of Turtle Ship ever built by Homer B. Hulbert for St. Louis World's Fair ..... **WooHong Jeon**/Collector of Marine Relics
- Thank-you Note
- Floral Tribute
- Closing

※ Lunch boxes are ready after the service

식 사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2017년은 헐버트 박사 서거 68주년이 되는 해이자 동시에 박사께서 제2차 헤이그만국평화회의 밀사로 활약하다가 일본의 박해로 한국을 떠나신 지 1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오늘 23살의 나이에 이 땅에 오셔서 조선 청년들에게 근대사상을 고취시키고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한 박사님의 애국정신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대학총장이자 회중교회 목사였던 헐버트 박사의 아버지(Calvin B. Hulbert)는 1877년 미국 버몬트(Vermont) 주 건립 100주년 기념강론에서 '애국심은 덕이다(Patriotism is a virtue).'라고 애국을 정의하셨습니다. 이어서 '애국을 실천하지 않고는 신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애국심은 어느 국가나 정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는 일이다.'라며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를 설파하였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이때 14살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애국심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박사님은 1942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인자유대회(Korean Liberty Conference)에서 '한국의 독립은 천부적 권리이다.'라고 주장하며 한국인들은 단결하여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왜 박사님이 한국 독립운동에 나섰는지를 답변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박사님은 자서전에서 어느 한 주장을 과격하게 지지하는 것이 편견이라고 한다면 '나는 정의(justice), 국제평화(international comity), 올바른 애국심(right patriotism)에 편견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박사님은 애국심을 '올바른 애국심'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박사님이 왜 자신의 모국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말까지 들어가며 미국의 친일정책을 비난하였는지에 대한 논거이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자국이기주의에 맹종하는 것이 아닌 정의와 인간애라는 인류 공존을 위한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애국이 올바른 애국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친애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오늘날 경제, 외교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아래 이념, 소득불균형, 세대 간 의식 등에서 남남갈등이 극에 달해있으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새로이 들어선 정권이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기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지혜를 모으고 애국심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문화 대한민국을 후세에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애국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애국자를 자처합니다. 실제로 기성세대 대부분은 애국대열에 참여한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주장, 행동은 항상 애국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자기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아집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진정으로 사회와 국가를 위한 것인지 면밀히 따져보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어떤 정파나 정치인에 맹종하는 것은 우상숭배(cult of personality)가 될 수 있습니다. 복잡다기한 현실구도에서 양보도 해야 하고 최선이 아닌 차선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헐버트 박사께서 실천한 정의, 인간애, 실용의 가치에 부합해야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박사님의 '올바른 애국심' 정신이 국민들 가슴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 사회가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본 기념사업회를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인탑스(주) 김 재경 회장님, 하나금융그룹,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IBK기업은행, 삼성물산, 현대기아차그룹, 신한은행, KB금융지주,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진원이엔씨 등을 비롯한 후원기관과 헐버트 박사의 제자 후손인 세보실업 김삼철 대표이사님, 성광교회 박광국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개인 후원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행사를 위해 궂은일을 맡아주시는 국가보훈처, 마포구청, 서울경찰악대, 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이 되어주시는 광복회, 독립유공자유족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YMCA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11일 (사)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회장 **김 동진**

일본의 양심 특별기고

인류 역사 상 궁극의 '전쟁 전 책임'을 묻는다!

호머 헐버트 박사 68주기 추모식에 앞서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4년 3월, 안중근 의사의 외손녀 황은주 여사, 증손자 안도용 씨가 참석한 순국 104주년 기념식에서 "안중근 의사는 민족의 영웅에 그치지 않고, 인류의 영웅이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참석자의 열렬한 찬동을 얻었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님이 "한국인 이라면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인물" 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미국인 헐버트 박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헐버트 박사님이 한국에서 활동하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엽은 인류 역사적 격동의 시대였으며, 1914년에 인류 최초의 총력전인 제1차 세계 대전이 유럽에서 발발한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국책을 오판하여 삿쵸오도히(薩長土肥, 사쓰마, 조슈, 도사, 히젠)와 공가(천황과 귀족)가 협력(조정과 막부의 일치협력)하여 권위와 권력을 통합했습니다. 1872년~1879년 류큐(오키나와) 처분을 거쳐 중앙집권국가를 탄생시키고, 패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후 청일전쟁을 거쳐 대만을 합병하고 중국을 침공했습니다. 러일전쟁 후 1905년 을사늑약(제2차 한일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1910년에 한국을 병탄하였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헐버트 박사님은 세계열강에 한국의 자주독립을 주장하기 위해 1907년 제2회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할 것을 발안하셨습니다. 그 헤이그 특사 중 한 분이셨던 이준 열사가 객사한 네덜란드 헤이그의 호텔이 지금은 이준열사기념관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2012년 이준열사기념관을 방문하여, 저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안중근 의사님의 유묵 "독립"의 복제품을 기증 전시하였습니다. 제2회 헤이그만국 평화회의 참석자 중에 오스트리아의 베르타 폰 주트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주트너 여사는 1889년 베스트셀러 소설 '무기를 내려 놓으라!'를 발표하여, 전쟁을 저지할 것을 전 세계에 호소하며 국제적으로 평화 활동을 전개하고 1905년 여성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의 기부로 헤이그 시에 건설된 '평화궁'의 100주년 기념사업 중 하나인 '세계의 평화 자선가 20명'전이 2013년 열렸고, 저도 그 중 한 명에 선정되어 패널 전시되었습니다. 개회식에 맞춰 주트너 흉상의 제막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흉상 제작자인 네덜란드 조각가 잉그리드 로레마 씨와 만나게 되었고, 그 인품과 심원한 신념이 느껴지는 흉상에 매료되어 카네기재단의 찬동을 얻어, 2구의 주트너 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트너 상이 '특별한 평화 사절'로서 세계 각지에 건립되어 그 뜻이 현대에 되살아나 확실한 평화로의 흐름이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독립운동에 매진하신 헐버트 박사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사랑한 한국의 영원한 친구"라고 불리며,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역할도 수행하셨습니다. 동시대인 19세기 말에 그리스 태생인 아일랜드 작가 라프카디오 헌(고이즈미 야쿠모)은 일본 시마네현 마츠에시에서 교편을 잡고, 미국과 유럽에 본격적으로 일본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현재 헌의 외국 문화(다른 문화)에 마음을 여는 '오픈 마인드'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헌은 청일 전쟁 후에 일본의 풍조에 대해 "아마도 일본의 앞으로의 위기는, 아마도 이 터무니없는 큰 자부심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마음〉, 1896) 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헌의 지적대로 일본은 길을 잘못 들어섰고, 여러분들의 나라에 큰 재난을 안겨드렸습니다. '전쟁 후 책임'을 다하는 입장의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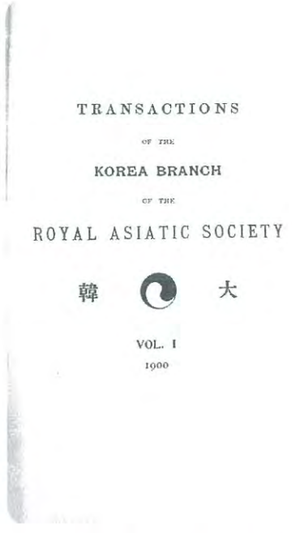
현재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 전의 상황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간자연과학연구소는 1997년부터 세계의 전쟁 · 평화 기념관을 방문하여 학습 · 헌화 · 기부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분쟁 · 전쟁에 이르는 배경과 경위, 실태를 연구하여, '전쟁 전 책임' '전쟁 중 책임' '전쟁 후 책임'의 3분류로 나누어 고찰해 왔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일본, 대한민국, 북한, 그리고 3대 핵 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의 지도자는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궁극의 '전쟁 전 책임'을 추궁 당할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가해의 역사를 가진 일본 국민이 목소리를 내어, 피해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북한을 헤아리고, 이 지역에 본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미국, 러시아, 중국의 찬동을 얻어 세계의 기대를 짊어진 평화 사업을 일으킴으로써 '대립의 문화에서 공생의 문화'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서 세계 항구 평화로의 흐름이 시작될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의 김동진 회장님, 그리고 김동진회장님을 소개해주신 도서출판 꼬레아우라 월간 〈영웅〉지의 박창재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반재단법인 인간자연과학연구소 이사장, 코마츠전기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코마츠 아키오(小松紹夫)**

김동진 회장,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사왜곡과 관련한 서한 전달

2017년 4월 7일 미국에서 열렸던 미 · 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Korea was a part of China)'라고 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 발언과 관련하여, 이러한 표현은 사실이 아님을 헐버트 박사의 117년 전 논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헐버트 박사는 1900년 아시아 왕립학회 한국지부에서 발행한 「Transactions」 지에 기고한 〈한국의 유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사 이래 한국의 어느 왕조도 중국의 간섭에 의해 건국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기념사업회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헐버트 박사의 논문을 첨부하면서 이러한 발언은 역사왜곡임을 지적하였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서한을 통하여 전달하였다.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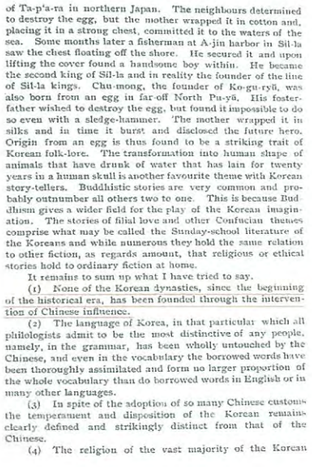
ROYAL ASIATIC SOCIETY

韓 大

VOL. I

1900

〈1900년 아시아왕립학회 한국지부 찹지 표지〉


40 KOREAN SURVIVALS.

of Ta-p'a-ra in northern Japan. The neighbours determined to destroy the egg, but the mother wrapped it in cotton and, placing it in a strong chest, committed it to the waters of the sea. Some months later a fisherman at A-jin harbor in Sil-la saw the chest floating off the shore. He secured it and upon lifting the cover found a handsome boy within. He became the second king of Sil-la and in reality the founder of the line of Sil-la kings. Chu-mong, the founder of Ko-gu-ryŭ, was also born from an egg in far-off North Pu-yŭ. His foster-father wished to destroy the egg, but found it impossible to do so even with a sledge-hammer. The mother wrapped it in silks and in time it burst and disclosed the future hero. Origin from an egg is thus found to be a striking trait of Korean folk-lore. The transformation into human shape of animals that have drunk of water that has lain for twenty years in a human skull is another favourite theme with Korean story-tellers. Buddhistic stories are very common and probably outnumber all others two to one. This is because Buddhism gives a wider field for the play of the Korean imagination. The stories of filial love and other Confucian themes comprise what may be called the Sunday-school literature of the Koreans and while numerous they hold the same relation to other fiction, as regards amount, that religious or ethical stories hold to ordinary fiction at home.

It remains to sum up what I have tried to say.

(1) None of the Korean dynasties, since the beginning of the historical era, has been founded through the intervention of Chinese influence.

(2) The language of Korea, in that particular which all philologists admit to be the most distinctive of any people, namely, in the grammar, has been wholly untouched by the Chinese, and even in the vocabulary the borrowed words have been thoroughly assimilated and form no larger proportion of the whole vocabulary than do borrowed words in English or in many other languages.

(3) In spite of the adoption of so many Chinese customs the temperament and disposition of the Korean remains clearly defined and strikingly distinct from that of the Chinese.

(4) The religion of the vast majority of the Korean

〈한국의 유물(Korean Survivals) 논문〉

본 기념사업회 김동진 회장이 직접 백악관에 전자편지로 보낸 내용을 소개합니다. 또한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같은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 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며, 미국 국무부를 통해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동진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인들이 헐버트 박사의 역사 인식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를 올바로 인식하길 바라면서 서한을 기초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친애하는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님,

먼저 미합중국 대통령에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인은 대통령께서 언론과의 회견에서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한국 국민을 대신하여 이 서한을 보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께서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들으셨다고 합니다.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표현은 사실을 호도하는 왜곡된 역사 해석입니다. 다행히 어제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은 한국이 수천 년 동안 독립된 나라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언론 회견에서 하신 앞의 말씀을 신속하게 정정하여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한국은 유사 이래 독창적 문화를 가진 주권국가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한 저명한 미국인의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역사 기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미국인은 바로 호머 헐버트 박사입니다. 헐버트 박사는 미국 버몬트 주에서 1863년에 출생하여 1884년에 다트머스대학을 졸업하고 1886년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20년 이상 살면서 한국의 근대 교육을 개척하였으며 한국 역사에 대해 가장 저명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한국 역사에 관해 〈한국의 유물(1900)〉, 〈한국사(1905)〉를 비롯한 많은 글과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헐버트 박사께서 〈한국의 유물〉이라는 글에서 서술한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소개합니다.

'유사 이래 한국은 어느 왕조도 중국의 간섭에 의해 건국되지 않았다.'

'한국의 문화나 풍물은 고유하고도 토착적이며 중국과 닮은 것은 예외일 뿐이다.'

미국인인 헐버트 박사의 역사 해석이 대통령님과 미국인들의 정확한 한중관계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상호 유익한 한미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2017년 4월 25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사)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회장

김동진 올림

Letter To President Trump

Dear Your Excellency President Donald J. Trump

Congratulations on your inauguration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 am writing to you on behalf of saddened Koreans upon listening to your recent interview on the historical standing between Korea and China. The media reported that in your recent meeting with the president of China you were told that 'Korea was a part of China.' This is a totally misleading and distorted statement. However, the spokesman for White House yesterday confirmed that "America know well that Korea has been independent for thousands of years" Thanks for your team's prompt action to correct the earlier report. Nevertheless, I would like to introduce a prominent American historian's statement on Korea's distinct historical relation with China to make sure that Korea has been unique and distinct country since the beginning of the country.

The American is the late Dr. Homer B. Hulbert who was born in Vermont in 1863 and came to Korea in 1886 after graduating from Dartmouth College in 1884. Living in Korea for more than two decades, he pioneered modern education in Korea and became the most renowned historian on Korean history. He wrote many articles and books including 〈Korean Survivals〉(1900), and 〈The History of Korea〉(1905). The following are key statements from his work of 〈Korean Survivals〉 on Korea's relation with China:

'None of Korean dynasties, since the beginning of the historical era, has been founded through the intervention of Chinese influence.'

'The points of similarity with the Chinese are the exception and that survivals of things Korean purely native and indigenous are the rule.'

Hope these Dr. Hulbert's statements help you understand Korea-China relation correctly, and also thank you for your efforts to make Korea-U.S. relationship mutually beneficial.

I wish you success in every aspects.

Sincerely,

Kim DongJin, Chairman, the Hulbert Memorial Society, a commemorating body for the late Dr. Homer B. Hulbert

Tel: 82-10-5265-7699 Email: hulbert0126@naver.com

Address: 202ho, Welfare Center for Independence Patriots, 46 Seongji-gil, Mapo-gu, Seoul, Korea 04083

1903년 헐버트 박사에 의해 제작된 거북선 모형 공개

한국의 문화유산에 매료된 헐버트 박사는 한국의 세계적 발명품을 국제사회에 소개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헐버트 박사는 1899년 한국의 5대 발명품(거북선, 금속활자, 폭발탄, 현수교, 한글)에 대해 미국의 저명한 학술지인 하퍼스(Harper's)지에 기고하였다.

더 나아가 거북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St. Louis) 세계박람회에 출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거북선 모형을 제작하여 미국으로 가지고 갔으나 주최 측이 해양전시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시를 거부하였다.

헐버트 박사는 이를 두고 평생을 안타깝게 여겼다.
이 거북선이 해양유물수집가 전우홍 선생에 의해 한 세기가 넘어 한국에 돌아왔다.
전우홍 선생은 이 거북선 모형을 미국의 한 수집가로 부터 구입하였다.
이 거북선 모형이 114년 만에 최초로 공개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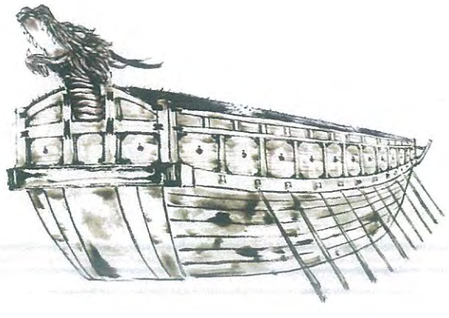
〈헐버트 박사가 주도하여 1903년(추정)에 제작한 거북선 모형(길이 140cm/폭 40Cm)〉

〈거북선 모형의 이물〉

거북선 모형은 3개의 층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열리는 창(窓), 갑판으로 통하는 사다리, 마루판, 선수미의 미닫이 문(門)과 고물에는 비둘기 꼬리(꽁지부리/船尾虛欄)를 표현했다. 청동 대포는 나무수레(童車) 위에 놓여 있고 모든 창문은 개별적으로 작동되고 닻에 쇠사슬이 달려있고 이밖에도 많은 설비가 부착되어 있다.

〈거북머리와 철침 및 활, 포, 노 구멍〉

정교한 기술로 거북 잔등에 청동장식과 칼 송곳(錐刀)이 박힌 철편(鐵片)으로 씌워졌다. 용머리의 부분은 유연하게 제작되어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 적군(倭軍)이 다가 올 땐 용머리가 끄덕여져 사나운 용처럼 보이게 된다. 이 거북 전함은 한국 해전에서 없어서 안 될 존재로 한국인은 500년 전(임진왜란) 일본의 침략에 싸워 물리칠 수 있었고 전함으로는 최초로 철갑을 두른 배였다.



〈거북등을 제거한 갑판 내부〉

모형은 전시를 위하여 거북등을 분리 되도록 만들었다. 주 갑판 밑은 노 젓는 갑판과 바닥 갑판 즉 2층 구조로 되어 있다. 주 갑판에는 13문의 포가 있으며, 주 갑판에서 하부 갑판으로 내려가는 사다리 2개가 설치되어 있다.

〈현측:활 쏘는 현창, 포혈, 그리고 노 젓는 구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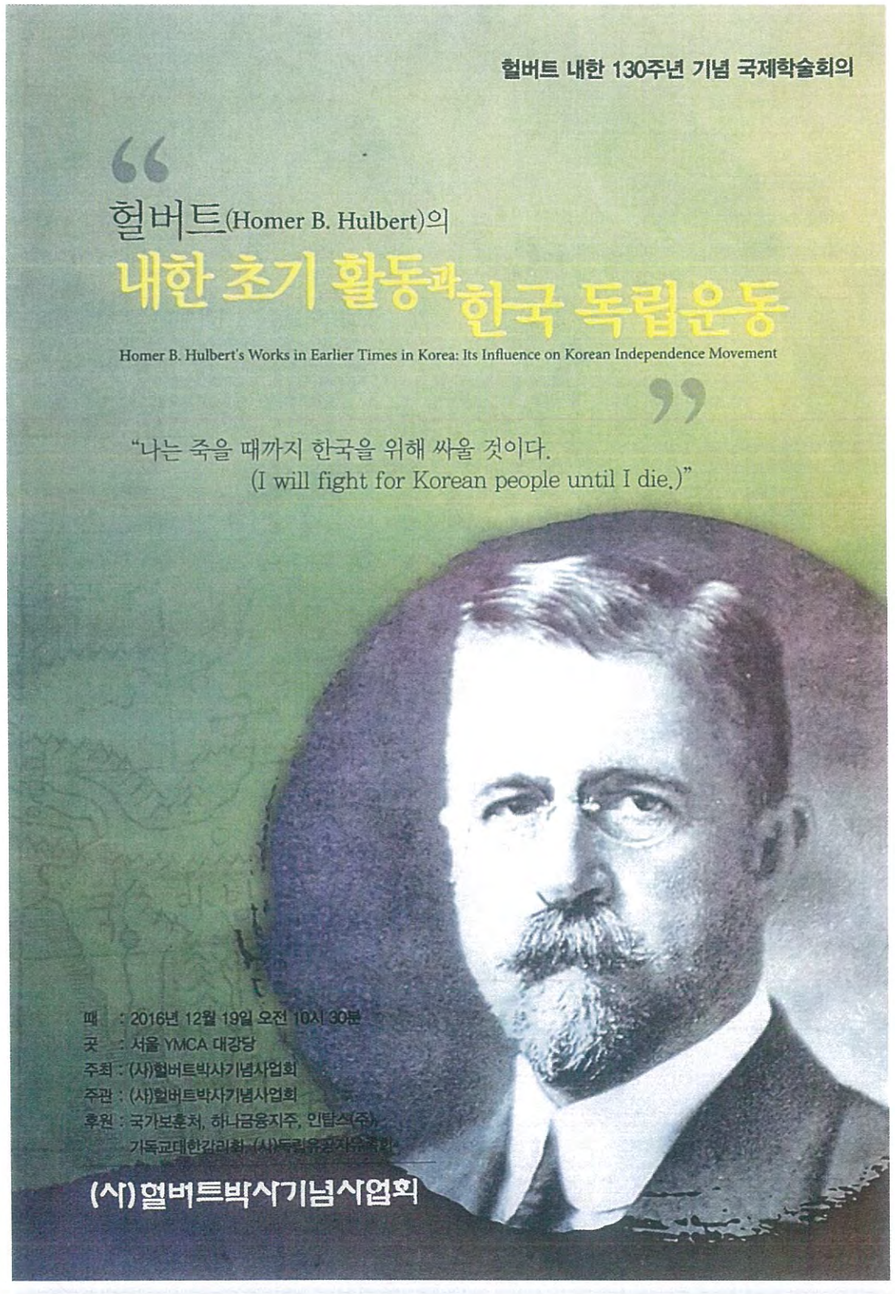
〈내부:포와 갑판 밑에 노 젓는 반(1/2) 갑판과 사다리〉

〈거북선 모형의 원 소유자 Mr. J. A. Stoddart 씨와 전우홍 선생〉

국제학술회의 개최

헐버트 내한 1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헐버트의 내한 초기 활동과 한국의 독립운동' (2016년 12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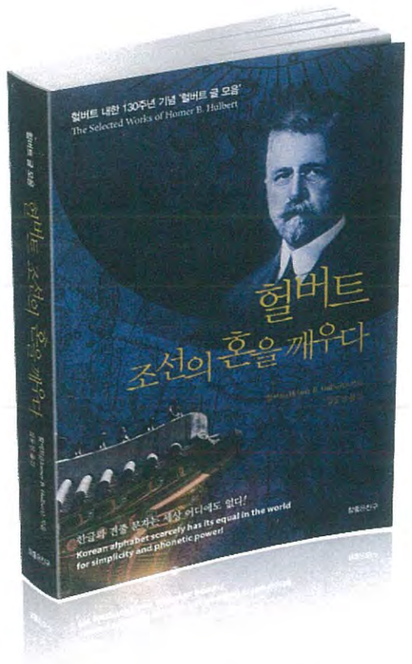


〈국제학술회의 광경.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주한미국대사도 참석하였다.〉

〈종합토론에서 헐버트 박사는 더 연구되어야 하고,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민족 뿌리 탐구서 〈헐버트 조선의 혼을 깨우다〉

독후감 공모전



• 1886년 조선 땅을 밟아 "조선의 살길은 교육뿐"이라며 이 땅에 근대 교육의 초석을 세웠다. 한민족의 말글, 역사, 문화를 탐구하여 조선을 문명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일본의 침략주의에 맞서 싸우며 정의와 인간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조선 청년들에게 뜨거운 울림을 낳았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 뤼순감옥에서 "헐버트는 한국인이라면 하루도 잊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일본 경찰에 공술하며 최상의 존경을 표했다.

• 한글을 배운 지 4일 만에 한글을 읽고 썼으며, 1주일 만에 조선인들이 위대한 한글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충격을 받아 한글을 조선의 문자로 만들자고 마음먹었다. 내한한 지 4년 만에 161쪽의 〈사민필지〉라는 최초의 한글 교과서를 출간하여 한글 범용의 지평을 열고, 남녀평등과 반상타파를 주창하였다. 이어서 조선의 말글, 문학, 속담, 예술, 풍속, 종교 등을 파헤쳐 한민족의 뿌리를 최초로 탐구하였다.

• 대한민국 역사에서 유일무이하게 '건국공로훈장'과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한 겨레의 은인이자 스승인 헐버트가 탐구한 한민족의 역사, 문화적 뿌리에 대해 국민들의 감상을 듣고자 한다.

응모자격 : 제한 없음. 일반인, 교수, 교사, 학생, 외국인 등 누구나

대상도서 : 〈헐버트 조선의 혼을 깨우다〉
* 헐버트가 한민족의 말글, 문학, 속담, 예술, 풍속, 종교 등에 관해 저술한 57편의 논문 및 기고문 모음. 김동진 옮김, 참좋은친구, 2016

응모형식 : 대상도서 전체 또는 대상도서 내 특정 글에 대한 응모자의 감상을 형식에 구애 없이 기술. 역사적, 학술적 가치 조명이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글 환영

시 상 : 무궁화상(1명) – 1,000,000원 및 상패/국가보훈처장 상
백 두 상(2명) – 700,000원 및 상패
한 라 상(3명) – 500,000원 및 상패/주한미국대사관 상
아리랑상(6명) – 300,000원 및 상패/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장 상
* 수상작은 책으로 엮어 대외적으로 배포할 예정임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20매 또는 A4 용지(바탕체 11포인트) 3쪽 이상. 상한제한 없음

원고제출 : 전자우편(hulbert0126@daum.net). 방문접수 사절. 부득이하게 우편접수를 원하는 응모자는 사전에 본 기념사업회에 연락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 원고 제출 시 인적사항과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소속 등) 기재

응모마감 : 2017년 11월 25일 자정(우편접수는 당일 도착 분에 한함)

심 사 : 관련 학자를 포함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

결과발표 : 2017년 12월 20일 이내(수상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문의사항 : 전자우편(hulbert0126@daum.net) 또는 (02) 3142–1949

기 타 : 1. 제출된 원고는 반환치 않음
2. 수상작에 대한 인쇄, 출판 등의 저작권은 본 기념사업회가 소유
3. 시상식은 12월 20일 전후 거행할 예정이며 별도 통지

주 관 : (사)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후 원 : 국가보훈처, 마포구청, 주한미국대사관, 헐버트펠로우십(Hulbert Fellowship)

사단법인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The Hulbert Memorial Society
서울시 마포구 성지길 46 독립유공자복지회관 202호(04083)
Tel : 3142–1949/Fax : 326–1863/www.hulbert.or.kr

기념사업회 고문(당연직) 위촉

〈이석하 서울YMCA 회장에게 고문 위촉장 전달〉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에게 고문 위촉장 전달〉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추모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헐버트 박사의 한국 사랑과 정의, 평화, 인간애,
올바른 애국심의 가치를 기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고 문** 이인수(명지대 명예교수), 이 석(고종황제 친손자), 김종택(한글학회 이사장),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장), 서유석(독도사랑회 대표), 이형모(재외동포신문 대표), 이석하(서울YMCA 회장), 전명구(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 **자문위원** 정방우(전 금융연수원장), 신방호, 박영철, 백영찬, 박세웅, 소수영, 박인기, 정정수, 염동삼, 최연식, 김응기, 이상구, 신우식, 신근호, Robert Fallon, Jeffrey Jones, Kevin Kehoe, Robert Whittemore, Hope May, James Bradley, Robert Ogburn 외
- **헐버트펠로우십**(Hulbert Fellowship) 강면모, 강홍규, 권호윤, 김경수,김낙환, 김영전, 박기찬, 박근생, 박중양, 윤진일, 이승연, 임태희, 전오종, 정양수, 황태인
- **명예회장** 신복룡(전 건국대 대학원장)
- **회 장** 김동진(전 JPMorganChase은행 한국회장)
- **이 사** 강신우, 김근하, 김대중, 김인, 성창훈, 채규영, 허정두
- **사무총장** 정용호 • **홍보실장** 강은환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을 위해 따뜻한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22-099919
(사)헐버트 박사기념사업회
후원금은 전액 세금공제 대상입니다

(사)헐버트 박사기념사업회
04083 서울 마포구 성지길 46 독립유공자복지회관 202호
Tel: (02)3142-1949 Fax: (02)326-1863
website : www.hulbert.or.kr